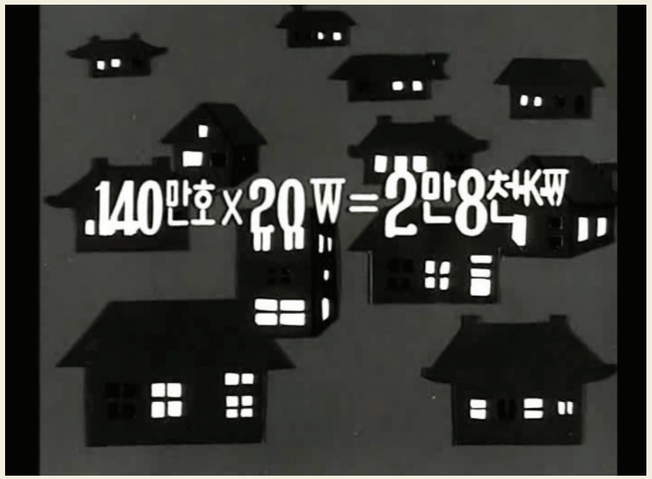
News

국가 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의지와 인내로 버티는 대한민국의 여름나기’, 7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7월 이달의 기록은 중복과 대서(中伏 · 大暑, 7. 23)를 맞아, ‘기록 속 에너지 절약’이라는 주제로 서비스를 한다. 기록물은 1960~90년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영상 12건, 사진 5건, 포스터 6건 등 총 23건이다.



한집 한등 끄기(1967, 동영상)–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140만호 가구에서 한 가구당 20W 전기를 절약하면 공장 150개를 가동할 수 있다는 내용

- 한집 한등 끄기 운동(1967), 소비절약캠페인–부산시민걷기대회(1975), 절약하는 생활(1980), 에너지 절약(1990), 에어컨사용절제(1992) 등 동영상 12건
- 에너지소비절약회의(1975), 에너지절약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는 시민(1992), 에너지절약을 위해 부채를 사용(1992) 등 사진 5건
- 에너지 절약 365일(1981), 에너지절약 10%(1990), 에너지절약(1991) 등 포스터 6건



에너지소비절약회의(1975)



에너지 10%절약 열관리궐기 대회(1977)



에너지절약을 위해 부채를 사용하는 직원들(1992)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 많은 발전시설을 지어 전력을 확보해 왔지만 급속한 산업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력 수요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력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고, 가정과 직장 등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1960~90년대 전기, 석유 등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펼친 다양한 활동에 관한 것이다. 공장 건설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는 산업용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가정에서 절전할 수 있는 것은 소박하게도 전깃불뿐이었는데, 가가호호 ‘한등 끄기’로 십시일반 모은 전기는 공장을 돌아가게 했다. ‘절전으로 모은 전력 산업부흥 이룩한다’는 표어가 눈에 띈다.

두 번의 석유파동을 겪은 1970년대에는 무엇보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류절약은 자전거로 하자’면서 여의도광장에서 벌인 어머니들의 자전거 행진, 6천여 명의 부산시민과 외국인이 참가한 에너지절약 걷기대회 등 시민들이 벌인 캠페인 광경이 흥미롭다. 또한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에너지소비절약회의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노력도 살펴볼 수 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전기 이용 시설, 대형 가전제품 등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1980~90년대에는 생활 속 전기 절약 방법과 대상도 다양해 졌다.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형 가전제품 사용 절제, 안 쓰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옷감은 모아서 한꺼번에 다림질하기 등 ‘절약의 생활화’를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에어컨사용절제(동영상, 1992)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사진, 1992)

특히 여름철 전기 소모의 주범인 에어컨 사용의 증가로 전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에어컨 사용 절제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루 한 시간 덜 가동하기, 사무실에서는 오후 2~4시까지 가정에서는 저녁 7~9시까지 사용 자제하기, 공무원의 간소한 여름 복장 착용으로 에어컨 사용 자제 유도 등 지금까지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실천운동을 만나볼 수 있다. 전력난을 이겨내기 위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꾸준히 펼쳐왔던 지난 시절의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모습을 기록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News

국가 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방역차의 추억, 1950~70년대의 여름철 방역 · 위생’, 8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1950~70년대의 여름철 방역 · 위생’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8월 8일(목)부터 나라기록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시범 위생도시 방역 모습(1960)

이번에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1950~70년대 여름철 위생관리와 방역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영상 15건, 사진 9건 등 총 24건이다.

- ⊙ 모기를 없애자(1959), 시범위생도시(1960), 하기 방역실시(1960), 콜레라를 막자(1963), 여름철 음식조심(1967), 헬리콥터 공중 방역(1971) 등 동영상 15건
- ⊙ 보건사회부 시내 방역(1958), 위생도시 지정 및 차량기제 인수식(1960), UNICEF 방역차 인수식(1967), 전국 위생관계관회의(1968) 등 사진 9건



보건사회부 주최 서울시내 방역 모습(1958)



모기를 없애자(1959, 동영상)-잘 때에는 모기장을 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당부



뇌염방역대책(1959, 동영상)-뇌염환자가 발생한 집에 방역당국에서 소독하는 모습



국토건설사업단 방역작업(1961)

무더위가 절정인 여름철. 부패하기 쉬운 음식, 기승을 부리는 해충, 휴가철의 야외생활 등으로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다. 가정에서의 위생관리 등이 어려웠던 지난 시절에 여름철 전염병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1950~70년대 여름철 대표적인 전염병인 뇌염과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 펼친 다양한 활동에 관한 것이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우선 강조된 것은 청결이었다. 위생 의식이 높지 않고 위생 시설이 취약했던 1950~70년대에는 개인 위생관리, 주변 환경정리 등 청결에 대한 계몽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뇌염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 주변의 풀베기, 우물 뚜껑 덮기, 하수구 · 변소 소독하기 등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뇌염의 주범인 모기를 없애야 한다고 집중 홍보하는 모습, 살충제를 뿌리고 모기장을 치고 자도록 당부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콜레라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이들 목욕 자주 시키기, 비누로 손발 씻기, 물 끓여먹기, 비위생적인 빙과류 먹지 않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음식물 섭취 조심을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나 파리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한 방역활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어깨에 소독약통을 짊어지고 골목과 가정집 처마 밑 등을 소독하는 모습, 하얀 연기를 뿜으며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동네 꼬마들을 모이게 했던 소독차의 모습,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전국 주요 도시를 공중 방역하는 모습 등 추억어린 광경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한 사람이 많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연막 분무기, UNICEF로부터 인수한 소독차량, 위생시범도시 지정, 부산에서 펼쳐진 방역시범 훈련, 전국위생관계관 회의 등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던 당시의 광경을 확인할 수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휴가철의 야외활동, 공동생활 등으로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때에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전력을 기울였던 지난 시절의 모습을 기록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건사회부 주최 시내방역 모습(1958)



충남 온양 위생도시 지정 및 차량기제 인수식(1960)

News

국가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 풍성한 추석 대목장', 9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물건과 소식을 주고받는 교류의 장이자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곳, 시장. 동네 어귀에 며칠마다 한 번씩 들어서던 시골장터는 차츰 사라지고 지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단연 시장이다.

국가기록원은 9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만나는 전통시장'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9월 17일(화)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동영상 12건, 사진 12건 등 총 24건으로, 추석을 맞은 시장을 비롯해서 5일장 등 1950~1980년대의 다양한 시장 모습을 담고 있다.

- ⊙ 추석풍경(1956), 생선시장을 찾아서(1957), 서울시 중구 현대식 시장 낙성식(1959), 장날풍경(1960), 추석(1964), 대구약령시장개설(1978), 청주 우시장(1984) 등 동영상 12건
- ⊙ 우시장(1956), 농촌 장날풍경(1960), 담양죽물시장(1961), 서울양곡도매시장 개장(1968), 추석전날 남대문시장(1975), 추석전 대구칠성시장(1977) 등 사진 12건


추석전날 남대문시장(1977)


농촌장날 풍경(1960)


추석전 대구 칠성시장(1975)


우시장(1956)


어시장(1956)


서울중부시장 준공 및 개장(1959)


동대문종합시장 개관식(1970)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은 1950~1970년대 시장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햇과일 · 햇곡식 등 각양각색의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 명절에나 살 수 있던 새 옷과 새 신발을 고르는 아이들 등 추석을 앞둔 옛 시장은 각종 물건과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장은 명절에만 활기를 띤 게 아니었다. 도시나 시골마다 장터는 거래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심장소였다. 특히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5일장은 온 동네의 축제나 다름없었다. 5일장이 서면 양곡과 채소, 포목과 갓, 옹기와 그릇, 톱 등 갖가지 생활용품이 장터 한곳에 가득 모였고, 그 한쪽 편에서는 우시장, 어시장 등이 같이 열렸다.

〈장날풍경〉(1960년 영상) 등을 통해, 장에 내다 팔 곡식이나 가축을 소나 지게에 싣고 가는 농부, 흥정을 붙이는 소시장의 거간꾼, 추가 달린 대저울로 무게를 재고 나무주판으로 계산을 하는 상인, 시장 한 켠에 지게를 지고 선 채 허기를 채우는 지게꾼, 멍석 위에 놓인 생선을 고르는 아낙네, 장이 마치면 삼삼오오 모여든 장꾼들로 북적이는 주막 등 지금은 사라진 옛 장터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담양죽물시장(1961)


남대문시장(1972)

한편 교통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큰 도시에서는 다양한 현대식 시설의 시장이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는 1959년 오장동에 2,300여 개 현대식 점포를 갖춘 중부시장, 1968년 용산의 양곡도매시장, 1970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동대문종합시장, 1985년 6만여 평 규모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였다. 대구에서는 광복직후에 맥이 끊어졌던 약령시장이 1978년 전국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들 시장의 개장 모습과 더불어 서울 서대문구 수산시장의 경매 모습(1957년), 남대문시장의 전경(1972년), 부산 자갈치시장의 새벽 풍경(1987년)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시장 풍경에 관한 옛 기록을 통해 어려웠던 살림살이에도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추석의 모습과 사라져가는 장터의 풍경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News

국가 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8월『기념일과 기록』, 광복절 맞아 관련 기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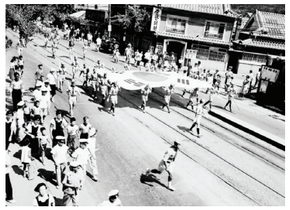
♦

국가기록원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1945.8.15)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국경일이다. 처음에 '독립기념일'이던 명칭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 '광복절'로 변경되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광복과 정부수립 당시 모습 및 1950~80년대 광복절 경축행사 등을 담은 동영상 6건, 사진 6건, 일반문서 1건 등 총 13건이다.

- ⊙ 광복절 기념식(1953), 광복절의 노래(1958), 광복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1989) 등 동영상 6건
- ⊙ 정부수립 경축식 전경(1948), 제10주년 행사(1955) 제20주년 경축잔치(1965) 등 사진 6건
- ⊙ 관보 제1호 – 정부수립 대통령 기념사(1948) 등 일반문서 1건



제15주년 광복절 기념 시가행진(부산, 1960)



제20주년 광복절 경축 잔치(경회루, 1965)

광복절과 관련해서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광복을 맞은 시민들의 함성과 웃음이 담긴 영상, 1950년에 만들어져 널리 불린 '광복절의 노래'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제10주년 · 제15주년 · 제40주년 광복절 기념식 모습, 1960년 덕수궁에서 열린 경축음악회와 시가행진, 1965년 경회루에서 열린 경축잔치, 1985년 새로 주조한 보신각종 타종행사와 삼각산에서 열린 민족혼대산신제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 광경을 볼 수 있다.

정부수립과 관련해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 광경, 경축 현수막이 걸린 남대문 거리 모습,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수립 기념사(記念辭)를 볼 수 있다. 기념사에는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써서 이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수립)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 전경(중앙청, 1948)



"경축, 대한민국 정부수립 만세" 현수막이 걸려 있는 남대문 전경(1948)

9월『기념일과 기록』, '통계의 날' 맞아 관련 기록 서비스

♦



국세조사 모습(1960)



농촌 국세조사 모습(1960)

9월 1일 '통계의 날'이다. 이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국가기록원은 9월 1일* '통계의 날'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기념일을 9월 1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날(1896.9.1.)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하여 1948~80년대 다양한 유형의 통계조사를 담은 동영상 7건, 사진 4건, 문서 1건, 우표 2건 등 총 14건이다.

- ⊙ 국세(國勢) 조사의 필요성(1960), 인구센서스(1966), 국내 첫 상업센서스 실시(1968), 10월 1일은 인구 및 주택조사(1970), 인구 및 주택 센서스(1985) 등 동영상 7건
- ⊙ 국세조사(1959), 농촌 국세조사(1960), 전국 주요 행정통계조사(1966) 등 사진 4건
- ⊙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1948) 등 문서 1건,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1949) 등 우표 2건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 우표(1949)



국세조사 기념 우표(1960)

국가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해서는 1948년 12월 공포된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과 총인구조사 신고서, 1949년 발행한 제1회 총인구조사 기념우표 등 정부 수립 직후의 인구조사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인구와 주택을 처음으로 함께 조사한 1960년 '인구주택 국세(國勢)조사', 1966년 명칭을 바꾼 '인구센서스', 본관 · 종교까지 조사한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영상을 통해 인구주택총조사의 변화상을 비롯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는 조사원, 다양한 표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처음 실시한 1968년의 상업센서스와 1969년의 공무원센서스, 1964년의 광공업센서스 강습회, 1966년 전국 주요 행정통계조사 등 다양한 유형의 통계조사 내용을 볼 수 있다.

News

국가 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 주최 기록관리 · 정보공개 공무원 연찬회 개최

국가기록원은 7월 4일과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국공립대학 · 정부산하 공기관의 기록관리 ·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650여 명을 대상으로 제1, 2차 기록관리 · 정보공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기록 관련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과 정부3.0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정보 공개 · 활용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등을 모색하고 적극 실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제1차 연찬회에서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우 차관은 또 "정부3.0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도 정부3.0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중심의 쉽고 편리한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등 기록관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정보를 공유 ·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 공개 확대를 위한 재분류에 착수하며, 기록물의 원문 공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민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기록물 관계 기관 기록을 한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또한, 환경부 · 세종시특별자치교육청 · 병무청 · 부천시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담당자가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정보공개 사례와 방안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기록관리 ·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정부3.0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박찬우 차관

국가기록원, 정전 60주년 맞아 관련 기록 전국 13개 지역 순회전시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쟁의 참상과 전후복구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한국전쟁 관련 기록 전시회를 전국 13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교육박물관에서 「1950년대 희망의 다리를 놓다」라는 주제로 '정전 60주년 국가기록 순회 전시회'를 가진데 이어 9월 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였다.

전시회에는 국가기록원과 유엔기록보존소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 · 영상 · 사진 등 250여 점의 기록물을 전시하며, '전쟁의 참상', '재건과 구호의 시작', '폐허에서 부흥으로', '한국성장의 디딤돌' 등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대 전후복구와 재건 모습을 담은 '폐허에서 부흥으로' 코너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일구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교실이 없어 노천이나 전차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 무너진 학교를 직접 재건하기 위해 나선 학생들의 모습에서 '못 먹어도 자식은 가르친다'는 당시의 교육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6.25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의 복구와 재건 모습도 담고 있다.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방직, 전선, 자전거, 스테인리스 공장 등 전후 새롭게 복구된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재 공업이 주를 이루던 시절이었지만, 전후 철강업의 한 축을 이룬 대한중공업공사, 초창기 산업단지라 할 수 있는 문경시멘트공장 등 중공업을 통해 경제적 도약을 꿈꾸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코너별로 6.25전쟁과 전시 생활상, 전후복구 모습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당시 외국으로 보내는 문화영화 「서울의 하루」에서는 서울의 명승고적과 역사,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다시 변화하고 발전한 서울의 거리, 서울 사람들의 생활상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어 흥미롭다.

한 할머니가 작성한 1950년대 「육아그림일기」에는 폭격에 떨고 있는 아이들과 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전시생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겨내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 당시의 생활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 덧붙여 전쟁의 발발에서 정전협정까지의 과정, 전쟁 속 미망인, 고아, 피난민, 군인 등의 생활상을 담은 해외수집 기록물도 선보여 전쟁의 참상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6.25전쟁의 참상과 전후복구와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기록을 통해 되돌아보고자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의 노력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전 60주년 국가기록 순회전시회 포스터



개막식 후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는 주요 내빈들



한강철교를 건너는 북한군 탱크(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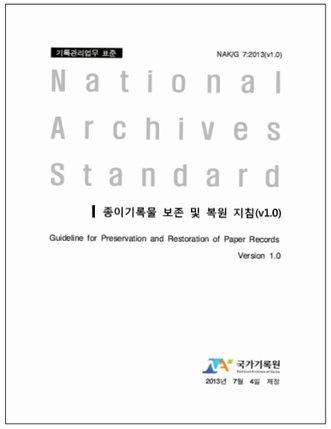
서울시내 재건 상황(1952)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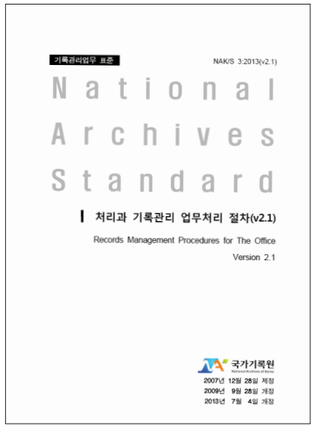
국가 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 2013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제 · 개정 고시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은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제정 및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2013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제 · 개정 고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각급 공공기관에서 종이기록물의 보존 · 복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NAK/G 7:2013(v1.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을 제정했다.
또한 생산현황 통보시기 및 관련 서식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NAK/S 3:2013(v2.1)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기록관리 안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황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통령기록관, 이화장 수해 기록물 복원 · 반납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1년 7월 이화장 침수로 대통령기록관에 긴급 이송복원처리된 이승만 전 대통령 유품 총 2,186건을 수해 복구가 완료된 이화장에 다시 전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화장은 집중호우로 담장이 무너지고 건물 외벽이 파손되면서 전시 또는 보관중인 기록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피해 당시, 국가기록원은 진흙탕물에 침수된 기록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기록물 복원 전문요원 등 소속 직원 연인원 200여 명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후, 침수된 기록물의 원상을 복원하기 위해 훼손이 심한 도면, 수첩, 금전출납부 등 50여 건의 종이기록물은 탈수처리 후, 진흙 등 오염물을 제거하고 안정화 조치를 취했고, 2천여 점에 달하는 가구, 집기, 공예품 등은 상태점검 후 이미지가 첨부된 목록을 작성하고, 진흙,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2차 복구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복원조치와 함께, 같은 해 9월 유족측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항온 항습이 유지되는 첨단서고에 보관해 왔다.
이번에 원 상태로 복원되어 제공되는 이승만 대통령기록물은 새롭게 단장된 이화장 본채 전시실에 재 전시되고,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화장 수해 복구 마무리 현장을 돌아본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수해 등으로 국가 주요 기록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민간 소재 중요 기록물에 대한 안전한 보존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수해 당시의 이화장 기록물 상태



복원조치 완료된 이화장 기록물

News

국가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관리 행정한류 넘어 해외수출 파란불

몽골 국가기록원에서 우리나라 기록물 이관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 놓고 있는 가운데 태국 국가기록원이 우리나라 기록관리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기록관리 전수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조만간 기록관리 시스템 수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이야나 얌사카이(Naiyana Yamsaka) 태국 국가기록원장과 기록관리 전문가 15명의 국가기록원 방문은 태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기록관 신축사업 ·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우리나라의 첨단시설과 선진 기록관리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으며, 기록물의 수집관리를 비롯한 복원 · 복제 시설과 열람 등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정도 견학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의 앞선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기록물 열람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며 기록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실무경험도 쌓았다.



나라기록관을 견학하고 있는 태국 국가기록원장과 직원들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와 법령에 대해 설명 듣고 있는 태국 국가기록원 방문단

한편 국가기록원은 몽골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9월 2일~9월 8일까지 몽골 기록관 신축 서고 사업과 관련하여 원내 기록물 이관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우리의 선진 기록관리 기술을 전수 하였다.

앞서 몽골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6월 27일에도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바 있으며, 몽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으로, 이는 단순한 지원 수준을 넘어 향후 다각적인 수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경국 원장은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선진 기록관리 전수를 잇달아 요청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단순히 개도국에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 기록관리 분야의 행정한류를 창출,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기록관리 시스템 수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대한지적공사, MOU 체결

국가기록원은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호)와 8월 21일 성남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중요 지적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상호 교류 ▲기록물 관리 체계화를 위한 지식 정보의 공유 ▲기록물 관리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타 기관 상호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의 협의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한지적공사는 국가기록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자료 등 지적기록물을 공유하고, 국가기록원도 대한지적공사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기록물 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기록물 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대한지적공사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박경국 원장과 김영호 사장

News

국가 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대전기록관 개관, 최적의 기록보존 및 서비스 공간 갖춰

♦

국가기록원은 9월 5일(목) 오후 2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군과 어머니 양정숙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개관식을 가졌다.

대전기록관은 대전 · 충청권 기록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통일 · 외교 등 주요기록물과 중부권 소재 국가기관 기록물 보존을 전담하게 된다. 대전기록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80만 권의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첨단서고와 복원시설, 열람실 등 복합기록문화센터로 건립되었다.

대전기록관 개관식에 참석한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여부 논란을 계기로 국가기록물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주요 국정과제, 대형국책사업 등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비리 등을 계기로 공사 · 공단 등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를 전면 보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정부'구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문화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분야까지 범국가적 기록문화 확산 ·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사말 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대전기록관 개관 기념 테이프 절단식

대전기록관 개관 기념, 「여 · 기(女性記錄) 기록이 있다」 특별전 개최

♦




전시장 전경


안내에 따라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는 주요 내빈들

국가기록원은 대전기록관 개관을 맞아, 9월 5일부터 12월까지 대전기록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여 · 기(女性記錄) 기록이 있다"라는 주제로 여성기록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부터 오늘날까지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기록물 8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여성 독립운동기' 코너에서는 3 · 1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수형기록표'와 일본군 '위안부' 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위안소 지도'를 비롯해 '수용인명부'(1945), 일본군 '위안부'의 조직적인 강제징집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문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여성기록' 코너에서는 '해녀', '노점상', '파독 간호사' 등 치열하게 삶을 이어간 여성들의 억척스런 삶의 기록도 직접 만날 수 있다. '어머니의 시간' 코너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를 비롯해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군의 어머니 양정숙 씨의 기록도 전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성' 코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증'과 우리나라 최초 여성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입었던 우주복과 관련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News

국내 기록관리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에 공개

서울 중구는 9월 1일부터 구청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중구 전체 위원회 75개 중 비공개 위원회 19개를 제외한 56개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다.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위원회들이 포함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생산된 회의록은 소급 적용해 일괄 공개, 8월부터 생산되는 회의록은 생산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한다. 공개로 결정된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해 심의한 경우 회의록을, 서면심의한 경우는 심의결과서를 공개한다.

위원들의 소신 있는 심의를 위해 공개하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 발언자 성명은 ○○○ 등으로 처리된다. 업무담당자가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 중구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정보공개–회의록 공개 메뉴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중구는 8월부터 국장 이상 결재문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장 이상이 결재한 계획이나 방침문서 등 주요 정책문서가 공개 대상이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로 생산한 문서는 제외한다. 생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 여부가 '공개'로 돼 있으나 비공개하려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에 근거해 그 사유를 적도록 했다.

진안군, 지자체 처음 '온–나라 기록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진안군이 전국 자치단체 처음으로 '표준 온–나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11월까지 사용자 교육 및 시험운영을 마치고 12월 초 서비스할 예정이다. 온–나라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행정기관의 보고 등 업무처리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개발한 업무관리시스템이다.

진안군은 온–나라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정부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BRM은 업무참조모형을 일컬는 것으로 '기능분류(연계)모델'로 불리며 자치단체가 수행 중인 모든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해 단위과제를 작성하는 모델이다. 국가기록원이 2007년 개발해 보급한 기록관리시스템은 군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생산 · 보존 · 활용 등 전 과정의 전자화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유실 및 멸실을 방지하고 법령에 따른 체계적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적기록의 철저한 보존 및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에 적극 활용된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이 통합 구축되면 1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은 물론 정부3.0 정책에 부응해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체계적 관리, 메모보고 등 업무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는 물론, 문서유통의 단순화로 직원들의 업무량 감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표준 온–나라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것은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시험운영 과정을 철저히 거쳐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귀중본 고(古)신문 54종 DB 구축, 대국민 서비스 준비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DB구축 중장기 로드맵 사업으로 '귀중본 고(古)신문 DB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1924년부터 1950년까지 근대 신문 54종 478책이다. 금년 1차 5억 원을 지원받고, 8종 27책을 우선 디지털화 작업 후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는 내년 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신문의 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 그 시대의 사건사고, 생활상, 물가정보 등의 전반적인 사회상, 연재소설 · 사진 · 광고 등을 통한 문화적 측면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스크랩이 가능해 연구 · 학술을 위한 자료뿐 아니라 개인의 창작 활동의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귀중본 고신문 DB 구축'을 통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영구 보존 · 전승하고 개방 · 연계 · 공유를 통해 그 활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3.0 실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News

국내 기록관리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서울역사박물관, 조국으로 가는 길 〈한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展 개최



□조국으로 가는 길□ 전시회 포스터

서울역사박물관은 8.15광복절 기념으로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조국으로 가는 길 〈한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제국의 대신이자 대동단 총재였던 동농 김가진과 그의 며느리로서 임시정부의 안 살림꾼으로 알려진 수당 정정화 등 일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의 뒷이야기와 함께 임시정부의 고단하고 어려웠던 생활상을 중심으로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크게 전시의 두 주인공인 동농 김가진의 이야기와 수당 정정화의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전시 구성은 ① '서울 출신 개화파 관료 김가진', ② '새로운 선택, 상하이 망명', ③ '고달픈 망명 생활상', ④ '강물에 뜬 망명정부', ⑤ '조국으로 가는 길'이다.

동농 김가진 이야기 부분에서는 후손가에 전해 내려오는 다수의 관련 자료를 통해 대한제국 대신, 개화관료, 애국계몽운동가, 서예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수당 정정화 이야기 부분에서는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의 이야기를 전시와 연극무대 연출을 결합시킨 기법으로 임시정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다수의 유물자료는 물론 연극적인 무대연출과 음향효과, 모형, 영상 등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5감을 자극하는 획기적인 전시 연출기법을 선보인다. 전시의 각 코너에서는 주인공을 마치 연극 무대에서처럼 등장시켜 관람객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많이 밝혀진 거시적인 독립운동사나 임시정부사, 혹은 주요 임정요인들의 정치활동에 초점을 둔 전시라기보다는 수당 정정화의 시선을 따라 임시정부 식구들의 고달팠던 망명생활의 구체적인 일상 생활사를 전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바탕 위에 오늘 우리가 조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시로 8.15광복절을 맞아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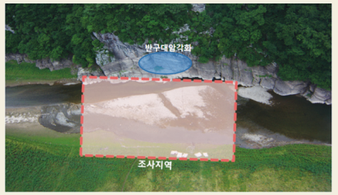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왕실 여성'이란 주제로 왕실문화 심층탐구 강연 개최

국립고궁박물관은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오후 2~4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관 강당에서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왕실 여성"이란 주제로 '왕실문화 심층탐구' 강연을 개최한다.

이 강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왕비(王妃) · 후궁(後宮), 공주(公主, 왕비 소생) · 옹주(翁主, 후궁 소생), 궁녀(宮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선 왕실 여성의 생활문화와 역할을 알아보는 심화 교양강좌이다. 왕실 여성이 되는 첫 관문인 간택(揀擇)과 책봉(册封)에서부터 왕실 여성의 아름다움과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복식과 미용, 왕실 여성의 재산과 경제생활 등을 12회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두루 살펴본다.

특히 조선이 남성중심의 유교사회였음에도 ▲왕비가 궁궐 살림인 내명부(內命婦: 후궁, 상궁 등 조선시대 궁중에서 품계를 받은 여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를 직접 관리 · 감독한 것, ▲공주와 옹주도 토지와 노비 등 재산을 받은 것, ▲대비(大妃)가 수렴청정(垂簾聽政: 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그를 도와 정사를 돌보던 일)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여성군주로서 절대적 권한을 수행한 것 등에 대한 강좌는 조선 왕실 여성의 주체성과 위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문화재청,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 시작



반구대 암각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지역

문화재청은 지난 8월 2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회의에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하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를 시행하도록 원안(原案)대로 가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반구대 암각화 주변 지역 지표조사와 물리탐사를 통해 반구대 암각화 전면 하천에 퇴적된 토사의 깊이 · 구조 등을 파악하고, 반구대 암각화 남서쪽 400m 지점에서 새로운 각자(刻字)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반구대 암각화 일원에 추가 암각화와 새로운 유물 ·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발굴 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8월 30일 개토제(開土祭)를 시작으로 착수하였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이 진행하며, 9~12월에 걸쳐 반구대 암각화 전면 5,000㎡(가로 100m×세로 50m)를 대상으로 한다. 과학 장비로 하천 등 주변 지형을 상세히 파악하고, 탐색갱(探索坑)을 만들어 지중(地中) 추가 암각화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News

해외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 미국

2012년 기록물 관리 자체평가 보고서 공개





국가기록관리청은 2013년 7월 29일 '2012년 기록물관리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2년 6월 국가기록관리청은 법령상 기록물관리 필요조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기록물관리 자체평가 지침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자체평가 대상 281개 기관 중 약 85%가 이에 응하였다.

국가기록관리청장인 데이비드 페리에로(David S. Ferriero)는 연방기관 기록물 관리의 점진적 발전을 환영했고, 앞으로 국가의 역사적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기록물관리 지침 정비 및 감독 업무를 충실히 할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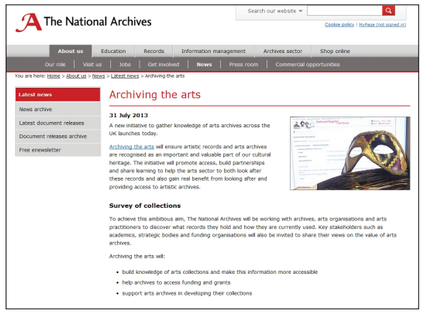
2012년 보고서는 연방기관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긍정적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위험군에 속한 연방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기록관리 직원이 전자기록물 관련 문제에 관해 협업하고 전자적 시스템 개발 및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 기록물 아카이브(Electronic Records Archives)를 이용해 영구 전자기록물 이관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등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엿볼 수 있다.

국가기록청은 2012년 평가결과를 정규 기관 감사 및 향후 기록관리 감독 프로젝트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연방 기록물과 정보 관리를 위한 21세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것이다.

영미 소식 | 서정호(표준협력과)
중국 소식 | 최희진(기록정보화과)
일본 소식 | 이윤경(표준협력과)

♦ 영국

미술 기록물 아카이빙 사업 추진



영국 전역에서 미술 기록물과 관련된 지식을 축적하는 사업이 금년 7월 시작되었다. 미술기록물 아카이빙은 미술 기록물 및 미술 아카이브가 문화유산의 중요하고 값진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미술 기록물 접근 강화 및 관리를 통해 미술계의 실질적 이득 창출 및 관련 지식 공유 등의 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국가기록원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록관, 미술 관련 기관, 미술계 인사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보유 중인 미술 기록물을 발굴하고 어떻게 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나갈 것이다.

미술 기록물 아카이빙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 소장품 지식 구축 및 정보 접근 강화, ▲아카이브가 보조금 등에 접근하도록 조력, ▲미술 아카이브 소장품 계발 · 발전 지원, ▲혁신과 모범 실무 제시, ▲미술, 문화유산, 기록 분야의 협력 강화, ▲미술 및 기록 커뮤니티 이익 관련 전략적 관계 구축 등이다.

♦ 호주

정보 인식의 달 (Information Awareness Month)





2013년 5월 호주 국가기록원은 정보 인식의 달(Information Awareness Month)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기관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변화 수용과 협력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의 주제는 '정보와 사람 연결하기(Connecting information and people)'이었으며, 정보 관리 및 정치적 설명 책임성과 같은 이슈를 포함했다. 잭 워터포터(Jack Waterford) 캔버라 타임즈 편집장, 스테펜 세지위크(Stephen Sedgwick) 호주 공공서비스 국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디지털 변이 · 변천을 경험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 연구에 대한 패널 토론(panel discussion)이 이어졌다.

데이빗 프릭커(David Fricker) 호주 국가기록원장은 현대 사회는 시스템 등이 서로 얼기설기 연결되어있고 사람과 비즈니스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것이 때로 우리를 정보 속에 익사시키고 있다 했다. 하지만 호주인들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정보 관리의 도전을 수용하기 위해 조직의 협업 중요성을 역설했다.

News

해외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중국

중앙당안관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서예작품전 개최





중국당안관 홈페이지

중앙당안관은 2013년 7월 26일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맞아 「그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오성기전(风展红旗如画)–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서예작품전」 행사를 개최하였다. 중앙당안관관장, 국가당안국국장 양동취엔(杨冬权)이 담화를 발표하고, 서예가 대표에게 〈중앙당안관소장증서〉와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양동취엔 국장은 중앙당안관이 5 · 4애국운동 이후 전국의 의미 있는 혁명역사기록물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당과 국가중앙기관이 소유했던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 마오쩌둥 기록물 중 주석의 친필원고 및 지시문 등 적지 않은 진귀한 기록물이 보존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기록물은 신민주주의 혁명과 신중국 건설의 찬란했던 과정을 증명하고,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두루마리 그림'처럼 한장면 한장면에 담겨있다.

중앙당안관과 중국서화소장가협회연합에서 열린 「그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오성기전(风展红旗如画)–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서예작품전」 행사에서는 정선된 120여 점의 마오쩌둥 소장 그림과 120명의 당대 저명한 서예가의 서예작품이 출품되었다.

이러한 서예작품들은 통일된 크기와 소재로 창작되었고, 40여 점의 마오쩌둥의 시사(诗词)를 포함하여 120점의 고전 명구가 엄선되었다. 이 120여 점의 서예작품은 전시 후 중앙당안관에 기증되어 영구히 보존된다.

참고 http://www.saac.gov.cn/news/2013-08/22/content_27180.htm

랴오닝성당안관 신관 준공 시범개관



랴오닝성 당안관 신관 내부를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

무더위가 물러가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중화인민공화국 제12회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랴오닝성 당안관 신관이 8월 30일 준공되어 시범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션양시 훈난 신구(沈阳市 浑南 新区)에 위치한 랴오닝성 당안관 신관은 바닥 면적이 6.9만㎡이고 총건축 면적이 8만㎡이다. 그 중, 신관 지상부분 당안서고 구역 면적은 3.5만㎡이고, 대외 업무용 사무동의 면적은 1.3만㎡이다.

신관 건축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고, 철근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였다. 진도 7도나 8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건축안전등급 1등급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 사용년한 50년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랴오닝성 당안관 신관은 2011년 8월 15일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 6월 15일 지붕을 덮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시범 개관 기간 동안 신관 소장 전자기록물과 마이크로필름, 현행 전자문건을 국민들에게 열람 개방하였다. 또한 "청대 황실 기록물 진품전시회", "랴오닝성 기억전시회"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http://www.saac.gov.cn/2013-09/02/content_28082.htm

♦ 일본

국립공문서관, 「공습(空襲)의 기록」 기획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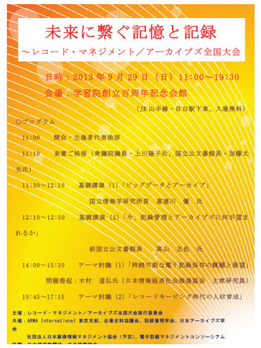


국립공문서관은 「공습(空襲)의 기록–전국 주요 도시 전재(戰災) 개황도(概況圖)」라는 주제로 제3회 연속기획전을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하였다.

종전 후 1945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제일복원성(第一復員省) 자료과에서 도시별로 편찬한 『전국주요도시전재개황도』는 조사원이 각 도시별로 파견되어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가고시마현(鹿児島県)까지 약 130여 개 도시의 전재(戰災) 개황도를 살펴볼 수 있다.

♦ 일본

일본아카이브즈학회, 「미래와 연결되는 기억과 기록」심포지움 개최



일본아카이브즈학회는 2013년 9월 29일 학습원 창립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미래와 연결되는 기억과 기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립공문서관, 일본경제신문사, 일본경영협회에서 후원하였다.

심포지움은 레코드 매니지먼트 · 아카이브즈의 보급과 활성화, 관련 단체 및 학회의 발전과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2개의 강연과 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日本情報経済社会推進協会) 수석연구원인 기무라 미치히로(木村道弘) 씨의 「지속가능한 전자기록보존의 과제와 전망」, 큐슈대학원 라이브러리 사이언스과(九州大学大学院ライブラリーサイエンス) 교수인 오카자키 아츠시(岡崎敦) 교수의 「레코드키핑 시대의 인재육성에 대하여」 대한 문제제기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문서관 기능보급 세미나 2013」 개최



전국역사자료보존이용기관연락협의회와 홋카이도립문서관(北海道立文書館) 주최로 「공문서관 기능보급 세미나 2013」이 8월 26일에 열렸다. 세미나 1부는 삿포로시공문서관(札幌市公文書舘) 시설견학이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홋카이도립문서관의 미즈노 마사히로(水野正宏) 씨의 「공문서관의 선별, 이관 시스템에 대하여」 외 3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변호사이자 도인요코하마대학원법무연구과(桐蔭横浜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교수인 하야카와 가즈히로(早川和宏) 씨의 「공문서 관리의 새로운 시대—공공기관의 논리에서 주민의 논리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New Book 새로 나온 책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내 일반 도서



한반도 분할의 역사

이완범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3-08-15 | 942쪽 | 223*152㎜(A5신) | 1319g | ISBN(13) : 9788971059234

이 책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기획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는 시대는 1950년부터 3년간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임진왜란 때부터 명과 일본은 조선을 분할하고자 했고, 20세기 초 러일전쟁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비록 역학관계의 유동성과 가변성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가 언제나 분쟁의 초점 지역이었고, 열강들이 쉽게 나눌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유복렬 | 눌와 | 2013-08-12| 232쪽 | 208*145㎜ | 302g | ISBN(13) : 9788990620668

외규장각 의궤를 돌려받기 위한 20년 협상, 그 현장에서 바로 퍼 담은 생생한 이야기들. 외세에 약탈되어 145년의 유랑을 마치고 우리 곁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그 반환협상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외교관 유복렬이 십 수 년간 협상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위협적인 순간들, 위기와 여러 사람들과의 다양한 인연에 대해 느끼고 겪은 일들을 담은 에세이이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안병직 | 이숲 | 2013-08-20 | 424쪽 | 220*152㎜| 635g | ISBN(13) : 9788994228761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버마와 싱가포르에서 2년 5개월 동안 일본군 위안소의 관리자[帳場]로 일했던 조선인의 일기로, 당시 일본 군부가 조선인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위안소 운영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료다. 이 자료의 발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부가 조선인 위안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성노예로 삼고, 이들을 철저히 관리 · 통제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었다.



식민지 불온열전

정병욱 | 역사비평사 | 2013-07-29 | 304쪽 | 214*152mm | 445g | ISBN(13) : 9788976965431

이 책은 식민지 시대의 통치 권력이나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나 기질을 보이는 '불온'에 대한 책으로, 일제강점기 불온한 사람들의 삶과 저항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라는 거대 역사 대신, 당대의 작은 개인들의 삶, 그저 평범한 보통사람들에 주목하고 그들의 삶과 일상, 저항을 복원해 냈다.



폭격

김태우 | 창비 | 2013-07-27 | 488쪽 | 223*152mm(A5신) | 960g | ISBN(13) : 9788936482640

이 책은 한국전쟁기 미공군 공중폭격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분석해 천사 혹은 악마로 양극화된 양자의 역사인식 모두로부터 탈피하여 미국의 실체를 밝히고 한국전쟁의 참상을 되짚어보고자 한 책이다. 저자는 한국전쟁기 미공군 문서 10만여 장을 수집, 분석해 당시의 러시아, 중국, 남북한 문서로 교차분석을 진행한 치밀한 연구결과를 수록하였다.



서수일기

박래겸(지은이) | 조남권 · 박동욱(옮긴이) | 푸른역사 | 2013-07-09 | 220쪽 | 213*152mm | 335g | ISBN(13) : 9788994079943

『서수일기』는 박래겸이 1822년 3월 16일부터 동년 7월 28일까지 126일 동안 평안남도 암행어사로 나가 민정을 살피던 당시의 일들을 기록한 일기다. 박래겸은 1822년 3월 16일 봉서를 받고 평안남도 암행어사로 나가게 된다. 사목책 한 권, 마패 하나, 유척 두 개를 하사받았고, 수행원은 모두 12명이었는데 신분 노출을 꺼려 몇 개의 무리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했다.